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1호 [주제 제25214호] 주제 105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보시였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항복 따라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는 영웅조선의 만리마기상이 하늘 끝에 닿아있는 격동적인 비약과 전진의 시대인 오늘 우리 인민군대 앞에는 조선의 힘과 불변의 의지앞에 전를 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최후발악, 전대미문의 피비린내 풍기는 침략전쟁 패기를 무적질승의 총대의 위력으로 제압분쇄하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 혁명의 운명을 굳건히 보위해야 할 중대한 역사적과업이 나서고 있다.

적들의 발광적인 침략전쟁연습소동으로 남녘땅이 화약내질은 전쟁터로, 핵살인장비의 전시장으로 변해버린 지금 우리 조국과 혁명앞에는 시시각각 일촉즉발

의 핵전쟁위험이 가로놓이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투명령에 따라 조선반도에 최악의 핵전쟁발발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열혹한 정세속에서 강위

력한 우리의 핵역제수단들을 장비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기동을 포함한 탄도로케트발사

훈련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보시였다.

황병세동지, 펴병철동지, 홍승무동지, 김정식동지, 윤동현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일군들, 핵무기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발사훈련을 함께 보았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 김락겸대장이 지휘하는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은 최고사령부로부터 받은 불의기동명령에 따라 발사구역으로 신속한 기동을 진행하면서 화력타격부대들의 경상적동원준비

태세와 높은 기동능력을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사훈련장에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대장의 화력타격실력을 칭찬하시고 비준하시였다.

전략군사령관의 발사구령에 따라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탐의 정체를 깨고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위력한 탄도로케트

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이번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혜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하여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대를 쏙발시키는 사격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실전을 향불계하는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부전선 타격부대들의 전투적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높은 기동력을 갖추고 적극적대상에 따르는 율바른 사격방법을 적용한 전략군의 이번 화력타격훈련이 성과적

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장병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일군들과 핵무기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성원들에게 핵무기운영체계를 더욱 완성하고 주제적인 탄도로케트전을 통개발려나가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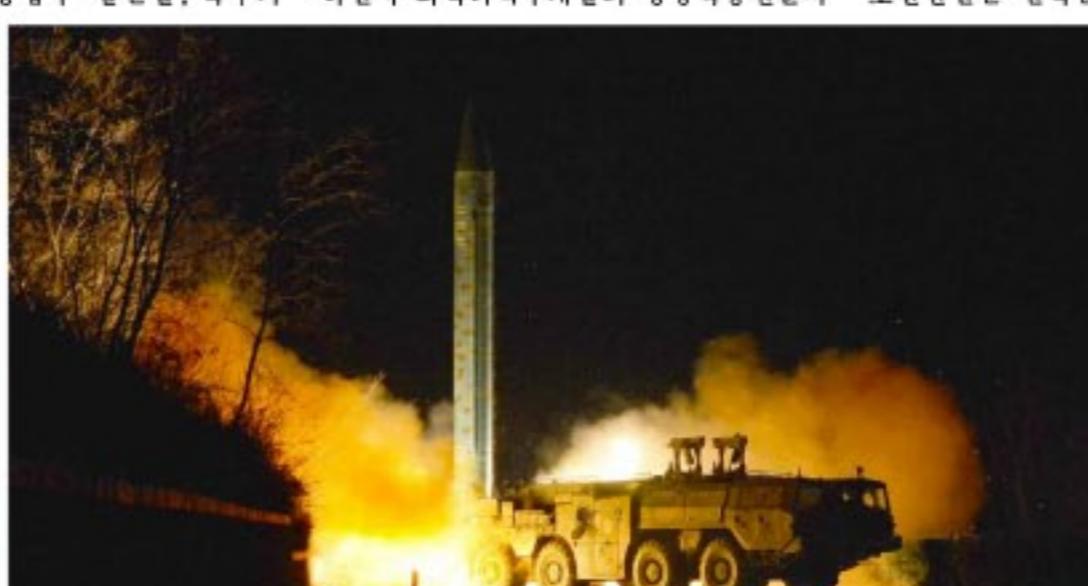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핵무력을 배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당에서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핵무기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핵탄

적용수단들의 다종화를 힘 있게 내밀어 지상파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능하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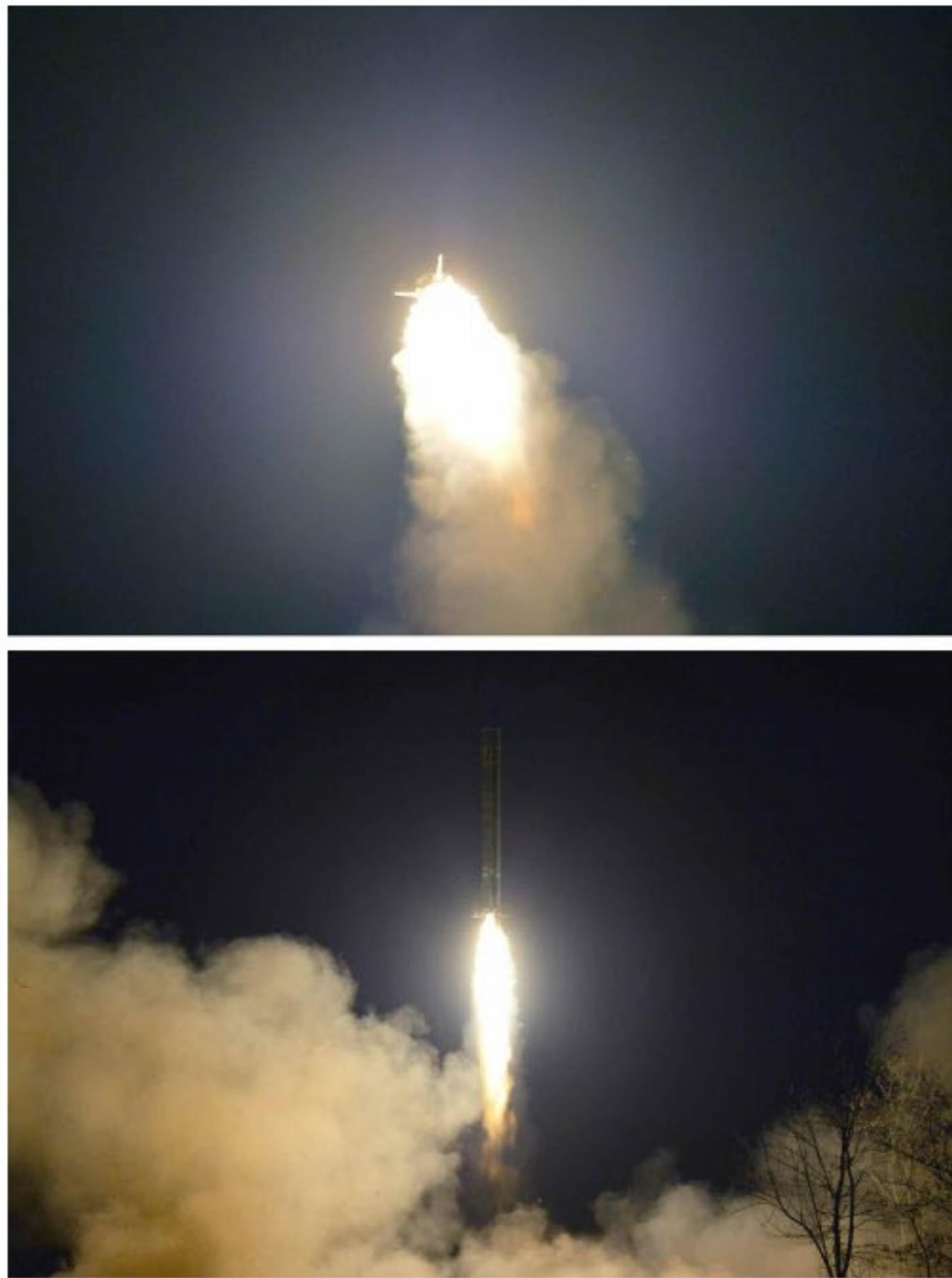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케트연구부문의 협동을 더욱 강화하여 핵타격능력을 부단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평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나갈 대한 전투적과업들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핵무기연구부문에서 핵탄두취급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국가최대비상사태시 핵공격체계 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전략적핵무력에 대한 유일적령군체계,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대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호전 광박근해무리들이 우리의 중대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미제침략군과 주종국가군대들을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력과 미국의 수다란 핵전략장비들까지 깨어 쓸어모아들여 사상최대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극히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실동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 강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로불적인 핵전쟁도발을 걸어온 이상 이에 따른 우리의 자위적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발사훈련을 보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이 유례없는 악랄한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해낸데 이어 우리 눈앞에서 극악무도한 학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극대화하여 우리를 조급이라도 흔들어보려는 어리석은 통상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던 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히스데리적인 전쟁 광기를 부리며 우리의 생존공간을 핵 참화속에 물어넣으려고 최후방위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핵전쟁도발 광증을 우리 공화국정부와 군대와

인민은 더이상 눈뜨고 지켜만 보고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적들이 잘못된 시기에 잘못 내린 저들의 판단과 대책없는 망통질을 놓고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것이며 그를 위하여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취해나갈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당이 극도의 북침야망에 들떠 존엄높은 우리 국가를 향해 또 다른 군사적 망동질이나 서토론 자작극을 벌려놓는다면 그때에는 괴뢰반동정권이 영원히 생존할수 없게 물리적으로 엄어맞고 사명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미 엄중히 경고하였지만 박근혜

『정권』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불운이 드리운 저들의 비참한 운명을 피해가려면 자중, 자숙하는 걸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이 눈앞에서 그 어떤 위험천만한 불장난질을 해댄다 해도 결코 눈屎 하나 까딱할 우리가 아니지만 실상은 우리 조국의 일목일초를 조금이라도 견드린다면 핵수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타격수단들에 즉시적인 공격령령을 내릴것이며 박근혜『정권』의 정수리와 괴뢰군부 괭개 무리들에게 생존이 불가능한 쟁멸적인 불세례를 들씌울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밀유직한 핵무장력인 조선인민군 전략군 장병들이 이 세상 그 어떤 침략과 전쟁으로부터도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 같이 수호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무분별한 전쟁 패수자들에게 주체의 군사적 대응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와 박근혜역적 패당이 북침 광기를 부리다 맥이 진하고 김이 빽질 때까지 남조선 작전지대인 주요라격대상들과 아시아 대평양지역 미제침략군기지들을 과녁으로 삼은 전략군의 모든 핵타격수단들을

황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두고 만단의 결전준비태세를 갖출데 대하여 명령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체 장병들은 적들이 어리석게도 우리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참수작전』을 떠들며 사소한 군사적 망동이라도 부린다면 하늘끝까지 치달고 있는 우리 천만군민의 무서운 보복열기를 총폭발시켜 영웅조선의 본래를 다시 한번 가슴후련하게 보여주고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을 성취할 결사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김정은령도자께서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선언하시였다

여러나라에서 일제히 보도

조선은 자주권침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나라인사들 강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고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신 소식을 9일 어머니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국방과학부문의 전문가들이 나라의 핵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자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핵부문 관계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핵탄을 경량화하여 단도로게 하고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핵부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하는데 이것이 전짜 태역제력이 뛰어난 범다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핵탄을 경량화하여 단도로게 하고 보다 위력하고 경량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보여주고자 핵부문에 대한 전략 및 전략탄도로켓제작에 커다란 주의를 물리시고 핵도로케트전투부들에 강착할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부의 구조작용원리를 보여주었다. 그이께서는 핵으로 덜 치려들 때에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범다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로씨야의 리마 노보스체통신, 인데브르통신, 신문들이 『로씨야스끼야 가제마』, 『모스콥스끼 품补齐에즈』, 『웨도모스찌』, 『브즈글라드』, 『아르크란티 이 파티』, 『로씨야TV방송』, 『로씨야 24TV방송』, 『렌드로TV방송』, 인데네트통신을 사진문한을 모시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당의 반공화국 암살작 등을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칭찬하는 외국인들의 목소리가 날을 파파 더 육 높아가고 있다.

벨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 조성원 밀란 일리에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하여 인류에게

탁혹한 재난을 들씌운 나라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장장비

를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해마다 대규모 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

을 침략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은 이라크와 라비아사례를 잊지 않고 있다.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

장 미리암 베베그리니 베리는 조선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나이가고 있다.

이에 불과 광포에 질린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말약을 다하고 있다.

일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광범위한 폭넓은 철학과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3세계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조선은 미국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강위한 정의의 핵억제력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광범위한 철학과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3세계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조선은 미국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강위한 정의의 핵억제력을 마련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나파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며 조선의 평화에서 물 한포기라도 더친다면 저들의 멀망민을 가져올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진보를 이룩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자기가 선박한 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땅크병
경기대회-2016》
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
에서 황병서동지, 박
영식동지, 최명수동
지, 비롯한 조선인
민군 지휘성원들, 군
종사령관들과 군단
장들이 맞이하였다.

땅크병지휘관들,
각급 군사학교교원
들이 훈련을 참관하
였다.

경기대회는 전군에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백두산훈련연통의 불
가마속에서 모든 땅크
병부대, 구문대들 울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갖춘 무쇠철갑대로
철저히 준비시켜
기동타격부대들의 싸
움준비를 더욱 완성함
으로써 일단 명령이
내리면 면적의 무쇠갑
들로 적들의 이성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
리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기대회는 추첨으로 정한 군단별 순
서대로 출발한 땅크들이 경기주로의
9개 계선에 실비한 장애물을 극복한
다음 이동 및 부동목표에 대한 사격을
진행하고 장애물극복운전점수와 땅크

포사격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하
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대회에는 군단들에서 선발된
땅크승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

에서 경기대회진행계획에 대한 보고
를 경취하시고 경기를 시작할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출발구령이 내리자 무쇠철갑의 동음
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맛다드

는 천수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영웅한 땅크병들의 담대한 배짱을 과시
하며 땅크들이 질풍처럼 내달리였다.

실전을 가상하여 실비한 각종 장애

물을 단숨에 극복한 땅크들이 목표들

을 향해 원쑤격멸의
포탄을 날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노도치는 무쇠철마
들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땅크들
이 장애물을 날
아股本실이 하는데
정말 블만 하다고.
땅크는 인민군대의
기상이라고 하시면
서 가슴이 후련하
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멸적의 유효소리와
함께 땅크병들의 가
슴마다에 용맹을 안
겨주며 울려 퍼지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힘찬 메아리로 하여
훈련장이 아니라 전
장을 방불케 한다고
하시면서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만족
해 하시였다.

경기대회는 고도
의 적동상태에서 하
늘과 땅, 바다초소를
철옹성같이 지키고
있는 전군의 장병들
이 일단 명령이 내
린다면 절호의 기회
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백두의 폭풍파
같이, 배두의 번개와
같이 단숨에 달려
나가 이 세상 제일

네절한 미제와 피뢰역적들, 그 추종무
리들을 베다귀도 주리지 못하게 목사발
만들것이라는것을 단호히 보이주었다.

4면으로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시였다



3면에서 계속

경기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제108기계화보병사단이 1등, 제3군단이 2등, 제105땅크사단이 3등을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기대회가 끝난 다음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에서 싸움준비를 빙틈없이 갖추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 한 경기대회를 통하여 지휘관들이 땅크병 싸움준비를 어떤 관점과 입장에서 보고 대하며 훈련강도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땅크병들의 전투적 사기와 훈

련에 대한 유행, 땅크운전수들의 능력을 높여 주는데서 아주 좋은 훈련방법인 이런 경기대회를 앞으로도 자주 조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땅크병들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좌우지세로 떨려나가 무쇠발톱으로 적진을 젓을 때 벌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자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깔아눕히며 제일 먼저 서울에 들어하여 괴뢰중앙청에 공화죽기방을 끊은 큰위 서울유경수제 105땅크사단 312호 영웅땅크병들의 싸움분체와 투쟁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한 경기대회를 통하여 지휘관들이 땅크병 싸움준비를 어떤 관점과 입장에서 보고 대하며 훈련강도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땅크병들의 전투적 사기와 훈련에 대한 유행, 땅크운전수들의 능력을 높여 주는데서 아주 좋은 훈련방법인 이런 경기대회를 앞으로도 자주 조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전문병훈련을 비롯한 싸움준비 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천금같은 기회는 우리가 먼저 선택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자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실전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고 고도의 격투상태를 유지하여 원쑤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선불침을 하려고 날뛰다면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용감한 땅크병들이 조국과 인민이 마련해준 무쇠철갑으로 조선로통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고 뜻깊은 올해를 전

투력 강화와 싸움준비 완성으로 빛나게 장식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6》은 불摧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모신 우리 인민군대는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강군으로 그 이름 및 내일 것이며 미세와 그에 추종하는 땅기지들이 우리 삶의 귀중한 티끌을 노리고 움직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자비하고 단호한 보복타격으로 모조리 정벌할것임을 다시금 밝힐 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장치보도반



전례없는 기적창조에로 부르는 혁명의 북소리, 총돌격의 나팔소리

중앙의 예술단체, 예술선전대 예술인들이 10여일 동안 연 25만여명을 대상으로 170여차의 경제선동활동 진행

충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10여일간 날에 남마다 놀라운 새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대고조전적장들에는 시대의 기수, 진군의 나팔수로서의 시령감을 짐짓같이 세긴 우리의 예술인들도 서 있었다.

그들이 힘차게 울리는 혁명의 북소리, 승리의 노래소리는 온 나라에 전투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경제선동대를 중요단위들에 파견하기 위한 조작성지사들을 짜고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실성있기 위해 전 일정에 따라 만수대에 출단, 피비디가 주단, 국립민족예술단, 청년 중앙예술단에 출단, 남파, 최고의 로열직위 훈장조에 힘있게 고후추종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무용으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임 있는 정치사업입니다.』

사상을 기본으로 끌어쉬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다.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리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질진적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경제선동대 활동은 참으로 중요한 사명을 수행한다.

경제선동대 활동을 강화하여 야성장국가건설의 전투장들이 언제나 혁명적분위기로 부글부

글 끊을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지를 모르는 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끊임 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

충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문화성의 일군들은 온 나라에 전투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경제선동대를 중요단위들에 파견하기 위한 조작성지사들을 짜고있었다.

지난 3일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간 만수대에 출단 예술인들은 만수대 성진을 창조한 전세대 예술인들의 그 정신, 그 기액으로 현지공연과 협동의 창작성지사들을 짜고있었다.

내성 6중창과 학창 『김정은장군에 영광을』, 내성 특장 『칠의 도시 밤하늘에 불은 눈이 내비네』, 혼성 5중창 『원처가자 천하제일강국』 등의 공연과 종목들은 꽃필로 통일된 활기찬 활동의 일정에 출전한 예술인들과 함께 사업도 진행하면서 당 제 7차대회장을 에 입고жал 전투기록장에 더 큰 위엄을 아로새기도록 적극 고무해주었다.

지난 4일 평양회회장전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간 영화에 출단 예술인들은 만수대에 출단 예술인들과 함께 경제선동대 활동을 향한 혁명적열의를 전세대 예술인들의 결의를 다시금 가다듬어 주었다.

이밖에도 철도성에 출전한 예술인들은 만수대에 출단 예술인들과 함께 경제선동대 활동을 향한 혁명적열의를 전세대 예술인들의 결의를 다시금 가다듬어 주었다.

관련악의 장중한 유통으로 대중의 심금을 끌어오는 광연종목들은 어느것보다 할것없이 이로운 경제 활동들이 연 25만여명에 대상으로 170여차의 현지공연과 예술인들의 실심과 막판을 안겨주었다.

전투의 철야진 군에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하는 블랙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절 불같은 맹세로 끝내 하였다.

농군명 중앙에 출전전대와 네명 중앙에 출전전대에 출단 예술인들의 사기고, 광사실적도 높아졌다.

제 70일전투의 진정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29일 경양시에 새로 입주하는 벼성광장전련장에 달려나간 예술인들은 창작성지사들의 심장을 끌고자 전투기록장을 고조하였다.

제 70일전투의 진정성이 높아졌다.

제 70일전투의 진정성이 높아졌다.

제 70일전투의 진정성이 높아졌다.

제 70일전투의 진정성이 높아졌다.

예술인들의 경제선동에 무한히 고무된 대외전설지도국안의 일군들은 70일전투에서 차부터 중앙에 출전전대의 예술인들이 배우면서 전투현장에 달려나와 경제선동의 목소리를 세차게 울려주니 전설성이 블루고 전투원들의 사기고, 광사실적도 높아졌다.

제 70일전투의 진정성이 높아졌다.

온 세계에 하여주는 무용작품들은 충정의 전투에 나선 우리들이 이 어떤 정신으로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말없이 가르쳐주었다.

70일전투의 진정성이 높아졌다.

든 전구마다에서 화선전통의 조성에 화답하여 비약의 회성을 높이 울리고 있다.

사상전선이 블루는 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하며 전방군들이 일떠선 것만큼 혁명이 전개한다는 철학을 실장마다에 새겨인은 예술인들은 오늘도 화선식 경제선동활동을 전투적으로, 기동적으로, 전격적으로

빌리면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총진군의 앞장에서 벅찬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조향

2016년 3월 11일

본사기자 조향

미제와 박근혜당에게 차례질것은 가장 비참한 패배와 종말뿐이다

반역무리의 청산은 빠를수록 좋다

외세를 등에 업고 그 무슨 『참수작전』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제제봉기』를 실현해 보려는 박근혜역적폐당의 특대형 도발소동으로 말미암아 북단판에는 그 뿐 아니라 유파를 찾을수 없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져들었다. 피의들은 미세침략군파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기리풀보』, 『독수리』 168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우리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빼앗고 미친 듯이 날뛰고있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도적이 메를 드는 격으로 저들의 무모한 도발적망동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대응에 대해 『로공적인 혁박당』이나, 『주가도방』이니하고 떠나며 일컬고 세련에서 『승정』과 『선제타파』를 떠벌어대며 정세를 더욱 폭주局面에 끌어가고있다.

민족운명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다. 조성된 양주한 사태는 해내외의 온저해가 등록대결과 복침전쟁으로 활동에 활동이 되어 피를 물고 남뛰는 박근혜역적폐당을 한시미지 않아 청산하기 위한 전민족투쟁에 한 사람같이 힘겨워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반역무리를 시급히 제거하는 것은 나라와 정의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사활적파이다.

북파 남의 좌파와 단합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는 것은 옥에 허물은 한걸음은 오우지지 지향이다. 더욱이 외세에 의하여 지난 세기 50년대에 전쟁의 참혹한 세난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되는 것을 절대로 빼지 않는 우리 민족은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넓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옥에 허물은 이 지향은 회의 대결마저 광우들이 박근혜역적폐당에 의해 무참히 짓밟고있다.

현 피의집권자가 들고나온 『제복정책』은 외세와의 복침질공조로 우리 군화국을 군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있다. 그것은 피의당이 온 겨례의 환경 같은 단죄규탄에도 불구하고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성장화하면서 그에 팽적적으로 베달려온 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지난 기간 박근혜당이 우리와의 미리적인 혁박역강화조치와 합법적인 우주개발활동을 그 무슨 『도남』과 『위협』으로 걸고들며 그에 『제제옹』한다는 구실로 외세와의 협력하여 갑금없이 감행한 복침합동군사연습들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폭침전쟁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머리에 걸리고있다.

정부의 위험은 사전에 저지해야 한다. 그 중대한 과제가 바로 우리 민족으로 나서고 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북파남, 해외의 옥에 허물은 한시미지 않아 감행한 복침합동군사연습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폭침전쟁으로 저지하고 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역적파들이 단호하게 청산하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나서는 문제이다.

현 피의집권체의 사상 유예없는 동족대결과 북파와 파죽죽재통치로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퀸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피의당은 북남관계를 어지럽혀 파괴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권리와 광고리 말살하였다. 북남대결에 활동한 옥에 허물은 그만 저지된다.

결론은 명백하다. 북만 물어오는 박근혜역적폐당에게 하루빨리 정벌의 천후를 떠려야 한다.

총체는 그 근원을 없애야 하며 독초는 뿐이며 뿐이며 면역이다. 북만 물어오는 박근혜역적폐당에게 하루빨리 정벌의 천후를 떠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악을 물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

로부터의 출로를 복침전쟁도발과 파죽죽제제 강화에서 찾고있다. 피의당이 우주를 걸고 『제로방지법』이라는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악법을 꾸며냄으로써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은 『종북』보자에 이어 『제로방지법』을 친명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저지하고 알리고 있다.

최장경에 말한 미국과 피의당의 북침전쟁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머리에 걸리고 있다. 피의당은 사전에 저지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을 잘 알고자 하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반대경부투쟁에 투입되어 나서고 있다.

현 피의집권체의 사상 유예없는 동족대결과 북파와 파죽죽재통치로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퀸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피의당은 북남관계를 어지럽혀 파괴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권리와 광고리 말살하였다. 북남대결에 활동한 옥에 허물은 그만 저지된다.

결론은 명백하다. 북만 물어오는 박근혜역적폐당에게 하루빨리 정벌의 천후를 떠려야 한다.

총체는 그 근원을 없애야 하며 독초는 뿐이며 뿐이며 면역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악을 물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

로부터의 출로를 복침전쟁도발과 파죽죽제제 강화에서 찾고있다. 피의당이 우주를 걸고 『제로방지법』이라는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악법을 꾸며냄으로써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은 『종북』보자에 이어 『제로방지법』을 친명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저지하고 알리고 있다.

최장경에 말한 미국과 피의당의 북침전쟁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머리에 걸리고 있다. 피의당은 사전에 저지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을 잘 알고자 하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반대경부투쟁에 투입되어 나서고 있다.

현 피의집권체의 사상 유예없는 동족대결과 북파와 파죽죽재통치로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퀸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피의당은 북남관계를 어지럽혀 파괴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권리와 광고리 말살하였다. 북남대결에 활동한 옥에 허물은 그만 저지된다.

결론은 명백하다. 북만 물어오는 박근혜역적폐당에게 하루빨리 정벌의 천후를 떠려야 한다.

총체는 그 근원을 없애야 하며 독초는 뿐이며 뿐이며 면역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악을 물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

로부터의 출로를 복침전쟁도발과 파죽죽제제 강화의 제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심 철 영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규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 성명 발표

박근혜역적폐당이 우리 민족 대중에 보이는 혁박역제과는 그대로 불에 타 없어져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피의들은 무자비한 철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례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겠는가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체로 인류사에서 최고봉으로 올라온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 꽃도 살현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가지 악을 불어오는 구악무도한 북국반역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우파의 정당한 해시힘과 주체워싱발사를 끝에 걸고 저들의 파괴적당동을 정당화하면서 남조선사회전체에 제 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오고 있다.

피의역적폐당의 막동을 께파하고는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밀전장을 짚수 없으며 자주, 민족, 통일에 대한